

## 행복, 시민의 목소리로 볼륨을 높여라 - 시민주권시대 행복지표 다시보기 -

오지은 | 지역혁신센터 선임연구원 (agnes@makehope.org)

### 요약

- '국민행복시대'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는 '지역공동체 행복지표'를 만들었으나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함. 이에 국민행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이야기한 문재인 정부의 행복정책이 관심을 받고 있음
- 반면 민선6기 들어서며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행복지표'를 고민하고 구현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인천 부평구, 순천시, 서울 종로구 등이 있음
-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행복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임. 서울 종로구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행복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행복조례를 만들어 발의하고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행복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음
- 희망제작소에서는 서울 종로구 주민들의 참여를 돕기 위한 행복드림아카데미를 운영함. 주민들의 행복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①공감하기-불만 드러내기, ②작은실천부터 함께하기, ③불만을 줄이고, 행복은 늘리기(행복실천)가 진행됨
- 종로구 사례를 통해 본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복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①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시민 주체와 ②주민들의 참여를 지원해 줄 전담행정이 필요함
- 무엇보다 시민들이 삶에서 행복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③기존 참여정책들과 행복지표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대표적인 주민참여정책인 주민참여예산과 마을공동체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주관적 지표로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행복지표를 고려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 동기를 형성하고 제도의 효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민참여플랫폼 형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함

**키워드** 시민주권, 주민참여, 행복지표, 행복, 종로구, 주민참여예산, 마을공동체, 시민참여플랫폼





응답한 사람은 딱 한명이었다. 대다수가 보통 또는 행복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행복’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에 자발적으로 참석한 주민들을 크게 행복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더 잘 알고 싶어서 온 경우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온 경우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과 관련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배우고 싶고 변화하고 싶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들로부터 개인의 행복을 넘어 종로구 전체 행복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가진 드러나지 않은 불만’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지역에 대한 불만을 끄집어내어 불만지도를 만들어보았다. 불만내용들은 환경, 시설, 사람, 행정, 기타 등 5가지로 분류했다. 각 불만들에서는 지역적 특색이 묻어났다.

[표 1] 종로구 동별 불만지도 내용

지역	불만내용	
평창동, 부암동	환경	● 지하철(세검정 교통) / 노후된 골목길(세검정)
	시설	● 주민편의시설(세검정)
무악동, 사직동, 교남동, 세종로동	환경	● No 악취 / 이면도로 / 마을버스 속도지키기 ● 까치퐁 퇴거
	사람	● 집값
	시설	● 협소한 주차공간 / 집(프라이버시 지켜주는) ● 기계발달 집 지을 때 벽 천장 재료 개발
	행정	● 너무 많은 행사(유아진흥원)
청운효자동	환경	● 노상, 음주, 수면 / 담배냄새 ● 환경(많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공기오염) / 녹지 공간 부족 ● 집회
	사람	● 외부인 ● 너무 많은 타 지역의 자기표현 사람들(시끄러움)
	시설	● 깨끗한 쉼터
	행정	● 배려 / 우체국 불친절
	기타	● 시끄러운 관광객 / 집회시위 너무 잦음 ● 음식값 / 커피값 / 주차장 없는 영업장 많음 ● 시장보기
창신동, 창신2동, 종로5-6가동, 송인동, 돈의동	환경	● 재래시장 위생
	사람	● 인사
	시설	● 위험 / 자전거, 오토바이
삼청동, 가회동, 혜화동, 이화동, 명륜1가동	환경	● 도보, 자전거 도로 / 공기
	시설	● 주차장 포화 / 교통안정 ● 운동시설 / 부족한 아이들 휴식처 ● No 진짜 피부과
	행정	● 너무 많은 집회 / 마을버스 없음(창신시장)

종로구는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지역으로 시설개선이 쉽지 않다. 또한 청와대와 광화문이 위치하고



### 3) 불만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기

주민들은 함께 동네를 둘러본 후 각자가 동네에서 경험했던 행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어르신들과 행복 돛자리 음악회’, ‘행복장터’, ‘한옥 골목길’, ‘어머니합창단’, ‘효자동 재래시장’, ‘봉사자들의 동네 케어’, ‘꿈의 공원(낙산,와룡,삼청공원)’, ‘인왕산 소리연습’ 등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주민들과 함께 한 활동까지 동네를 중심으로 행복했던 순간들을 공유했다. 이후 주민들은 현재 느끼고 있는 불만을 줄일 것인지, 경험한 행복을 늘릴 것인지 논의하며 행복을 함께 실천해보는 계획을 세웠다.

[그림 1] 종로구 행복 만들기 실행계획 수립 Worksheet

#### 〈행복실천 소감〉

“저희는 행복실천을 위해 제일 잘 된 것은 세검정 1교에 다른 조에서 꽃을 심었는데, 물을 멀리서 길어오는 것이 힘들다고 이야기 한 부분을 해결한 것이다. 저희 팀에 부암동 자치위원장이 있는데, 그 분이 동장님께 가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 함께 물 뿌려주는 사람도 생기고, 오면서 살펴보니 꽃도 많이 피었더라.”

“저희 조는 행복도 행복이지만 불만을 어떻게 줄여볼까를 고민했다. 이웃 간의 정을 느끼기가 어렵다. 우리 동네 뿐 아니라 다 마찬가지로. 나부터 솔선수범해서 엘리베이터 타서 먼저 인사를 하고 경비야저씨에게도 간단한 인사라도 해야지 생각하고 잘 실천하고 있다 ... (중략) ... 교육을 계기로 먼저 주변 이웃에 인사를 건네니 함께 인사해주시더라. 먼저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이란 그런 것이다. 어떤 일을 하고 성취감을 느꼈을 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순간이 행복하다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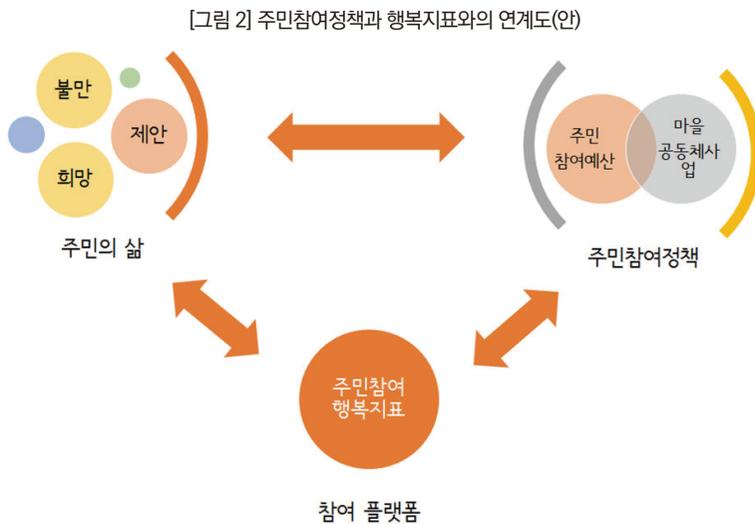




[표 2] 주민참여정책의 목적 및 기본이념

구분	목적 및 기본이념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행복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3조(기본이념) 시민참여예산제는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시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참여하여 자신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삶의 만족도 등을 행복지표로 만든다면,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각 정책들에 대한 주관적 평가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주민들에게 부족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서부터 사업으로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본 정보까지 지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행복지표를 만들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책에 참여할 동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책 참여의 결과를 분석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참여플랫폼으로도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민참여정책과 행복지표와의 연계 운영과정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아직 주민들이 참여한 지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지만 종로구 사례를 통해서 주민참여정책과 행복지표

의 연계를 가늠해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종로구는 행복에 대한 교육과 지표 개발을 행복조례 제정 하에 진행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무산되면서 주민들은 종로구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이를 제안했고 현재 운영 중이다. 아직 행복지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참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은 못하고 있지만, 향후 행복지표가 완성된다면 지표 개발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 주민들의 삶과 그 삶에서 연계되어 직접 참여하게 된 정책들을 평가하고, 정책의 효과 또한 주민들이 직접 그들의 삶 속에서 느끼는 행복의 증감을 통해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 IV. 나오기

### 주민은 행복할 준비가 되어있다

행복을 주제로 하는 많은 연구를 통해 돈이나 학력, 직업 등 객관적 조건보다 사회적 경험이나 관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험이나 관계의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은 대부분 개인의 선택으로 남겨진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시도하고 있는 행복한 지역 그리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반은 시민들의 직접 참여로 완성 될 수 있다. 주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행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한 국민으로서, 지역사회에 관심 많은 주민으로서 개인 차원의 막연한 행복을 넘어서 참여하는 삶 속의 변화로서의 행복을 직접 체험할 수 있길 바라본다.

## 참고문헌

### 단행본

희망제작소 (2017), 「목민광장 vol.12」\_ 주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마을

### 연구보고서

희망제작소 (2017), 「2017년 종로구 행복드림아카데미 자료집」

희망제작소 (2017), 「2017년 종로구 행복드림아카데미 결과보고서」

권기태, 김지현, 오지은 (2017),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발전방향 연구」, 희망제작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지역공동체 행복지표(특성) 개발 연구」

순천시 (2015), 「순천시 행복도시 비전 및 지표 개발 최종보고서」

부평구 (2016), 「부평구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설문조사 보고서」

### 기타

한겨레신문 (2017), 「한겨레21 vol.1175」\_ 행복은 노력순이 아니잖아요

통계청 <http://kostat.go.kr/>

법제처 <http://www.law.go.kr/>

### 기타

희망제작소 뉴스레터 칼럼 (2015), 「행복, 주민의 언어로 말하고 정책으로 풀어가기」

희망제작소 소개글 (2016), 「주민이 만들어 가는 무대, 행복거버넌스」

